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6년 9월 2일(월) 제671호

창간 1955년 4월 11일<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겸 주간 박재우 편집장 고병권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F) 외대학보사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통인) 0335-30-4112

대선기초공사... 한총련 용단폭격

본교생 4명 구속, 양캠프 모두 압수수색 당해



지난 8월 13일(월)부터 21일(월)까지 연세대에서는 제7회 조국통일범민족대회 및 제6회 조국통일범민족총년학생총회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 정부는 전원검거를 목표로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8000여명 학생 2000여명이 중상상을 입었으며 3000여명이 불구속기소되고 500여명이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은 86년 건대항쟁 이후 최대의 공안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고병권 기자>

'제 7차 범민족 대회'와 '제 6년 8월 12일(월)부터 15일(목)까' 어느때 보다도 탄압이 심했던 차 범민족 통일 대대적인 지 지 서울 연세대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건국에 치다 연명

자를 배출했던 86년 건대항쟁 보다도 많은 5,848명의 연행자와 462명의 구속자를 양산했다. 많은 수의 학생, 경찰이 부상을 당했으며 김중희 이경이 진압과 정 중 사망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본교 양캠프 학생들도 다수 연행됐다. 풀려났는데 이 중 유인 캠프스 94년도 총학생회장인 역 임한 최진선(인문·사학 4)군, 현 서울학대 학생회장인 강석원(사학·노어 4)군, 배현성(공대·정보통신 2)군 등 3명이 구속됐다.

또한 서울 캠프스에서는 이문 회(경제·신상 3)군이 구속됐다. 또한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 및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한총련 외곽에 주

동자 색출, 시위용품 압수 등의 명목으로 전국 주요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 본교 양인캠프는 지난달 17일(토), 서울캠프는 지난 달 30일(금) 경찰에 침탈당해 학생회 관에 남아 있던 20명의 학생이 강제 연행됐으니 이날 이후 모두 풀려났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용품과 정해 상관이 없는 총학과 외곽주에 있던 학교법인 관련자료를 민주 남부에 관한 자료들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경찰과 경찰은 시위용품 완전 검거를 목적으로 사태가 끝난 20일(화) 이후에도 전국 주요 터미널과 역 심지어 공판까지 경찰을 배치해 검문하고 있다.

정부도 전국 총·학생 회의를 열어 운동권의 자금줄을 차단한

다는 명목으로 학생회 수익 사업을 박탈하고, 학사 관리를 강화하며 이념 동이리 학화방을 폐쇄한다는 등의 학생회 약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위 진압을 위해 총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발표를 하고 새로운 시위진압 장비 도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30일(금)에는 나무누리에 개성해 있는 한총련 CUG을 강제해 지속적으로 전국 대학에 압수수색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시위 경력 구속자에게는 취업 제한을 한다고 하는 등 정부와 언론 재벌이 하나되어 한총련 축하기를 철폐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박병수 기자



YS를 위하여

▲요즘엔 학교 다나기가 무섭다. 특히 밤에 사회과학 서적 한권이라도 꺼고 다니려면 경찰서 산세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연대에서 작은 정쟁을 지르곤한 이후 학교나 그 근처에서 연행된 학생들이 수백명에 이른다. 본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캠프 모두 범민족대회 이후 경찰에게 침탈당했다. 컴퓨터를 비롯한 재산적 피해는 처하고서라도 오랜만에 후배들을 만나러 왔던 졸업생부터 학교에서 발붙게 까지 남아있던 학생들이 모두 연행됐다. 최라민 발붙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었다는 것뿐인데 말이다.

▲이런식으로 전국 50여개 대학이 경찰에 침탈당했다. 학교 곳곳에 날부러져 있던 술병은 모두 화염병 제조용이 되었고 있었고 있었던 이상한 물건, 사진집이 박스 채 쏟아져 나왔다.

압수수색과 함께 기가막힌 소식들도 많이 들려왔다. 시위진압에 진채총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총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이밖에도 정부는 산입생 오리엔테이션, 특강, 근로장학금 등 학생회에 자율권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회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위가담지는 취직지 피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학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학원을 침탈하며 학생들을 제발라기를 자행하고 외부적으로는 언론을 이용해 온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양 떠돌아다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범민족대회에 올해가 7번째이다. 정치적 구호도 매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전엔 신문이나 방송에 단거시 아니면 전혀 등장하지 못하던 연중행사였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특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의 집권하반기 레임달현상 극복과 정권재창출, 자신의 책임이후 보강이라는 과제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빨간머리 꼴라아 했으며 한 의의가 죽고 많은 학생들이 실명되고 다쳐야 했던 것이다.

▲모두가 국민의 삶보다 자신과 특정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벌어져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표된 '여성재단과도 경찰 단속'과 같은 시대착오적 망상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 김수환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나온 '대통령중립제개입'도 때때로 떠러지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의 퇴위후가 보장이 안된다면 말이다. 우리 이제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자. 이번엔 또 어떤 황당한 얘기가 나올까. 전·노사면? 중립제개입? 아니면 남쪽?

고병권

대학당국 민주납부 지로용지취소, 총학 일반계좌로 수납

용인, 체육관 건립·핵심요구안 관철 투쟁

지난 6월 4일(화)부터 5일(수)까지 양 일간에 걸쳐 '96년 2학기 민주납부 성사 여부를 묻는 총투표'에서 93.72%라는 찬성율로 민주납부를 결의하며 하반기 등록금투쟁의 과제를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마무리된 서울캠프스 상반기 등록금투쟁.

개강과 더불어 그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다.

지난 8월 대학당국은 민주납부를 위해 총학생회가 허가를 받은 등록금 지로용지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응수를 시작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일반계좌로 등록금을 수납하는 방법으로 즉시 대응방안을 실행

정했다. 또한 개강에 입학해서 민주납부 투쟁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책임지는 단위기구 건설이 제기되어 민주납부 투쟁 특별위원회(민주납부위)를 결성했다.

상시적인 사전고민으로 대학당국간의 협상을 전개할 협상단, 단체별 과별로 실천투쟁에 있어 대중적인 힘을 모을 단체 조직화 주체, 민주납부의 필요성을 학생들과 대중적으로 공유할 교양단 선전단을 체계로 구성했다.

한편 민남특위는 지난 1일(월)부터 등록금 상환 피의, 민주납부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작업에서 이를 권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화작업에 착수한다.

2일(월) 개강과 더불어 각 주체들은 지난 8·15투쟁의 여파로 벌어진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민주납부를 제안하고 도서관과 제일은행 앞에서 수납작업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또한 대대적인 선전전을 꾸준히 전개하며 대규모 집회로 투쟁의지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강을 기점으로 용인캠프스 하반기 학원자주화투쟁은 학내 정치사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방중 확대간부 수련회를 통해 상반기 사업의 오류점을 학생들과 함께 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간부교육 사업, 선전사업들을 하반기 과제로 설정했다. 기존의 30여 환을 요구는 예산에 있어 교정비율이 복지기금조성 투쟁으로 전환했다. 또한 대학당국과 학생회가 함께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학부대 투쟁이 새롭게 참가되면서 하반기 교육재정확보투쟁(교재투기)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학생회가 주인으로 사기위한 학원 건설을 위한 일환으로 후생복지관 건설에 이어 체육관 건립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모성훈(인문·사학 4)군은

"후생복지관 투쟁에서 보여 주었듯이 이 투쟁으로 학생들의 힘이 모아진 듯"이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투쟁은 학원에서 학생들의 자부심 실현에 있어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체육관 건설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를 위한 방안으로 총학생회는 개강과 동시에 주 2회의 상시적인 협상, 정기적인 유인물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그간 부진했던 과별·학년별토론회를 통해 단위별 실천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전영수 기자

지 면 안 내

민주납부, 어디까지 갔나...3면
민주납부의 현수소를 추적한다.

방중투쟁이 뭐야?...7면
어떤 동아리는 방학이 없다네

인대 통일투쟁에 대한 보도비평...7면
예를만타올랐다가 범청학원 통일축전이 인기있는(?) 세상

제7차 범대의 특집...8면
범대회기간 학생 대 전경의 휴전 도중 열린 전경·학생 한마당 등...연호에서 다루지 않은 뒷얘기 공개!

사건으로 다뤄보는 범대회...9면

경찰, 학생회 연행 등 성추행...10면



대통령의 웃음 어머니의 눈물

우리 어머니를 가슴아프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사, 실명, 두개골 함몰, 추락... 수많은 전쟁과 학생들을 다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청년학생들의 순수한 통일열정을 헬기로, 최후탄으로, 페르포그로 짓기려는 자 누구란 말입니까? 이번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경과, 학생, 시민들이며 주범은 바로 권력마기 누수를 공안탄압으로 타개하려는 대통령입니다.



전대기려 공동광고



전 국 대 학 신 문 기 자 연 합

 LG/인재개발위원회
TEL : 3773-2185 FAX : 3773-0588

종 투표에서 민주당부까지

팽팽한 줄다리기... 심판은 외대발전

학생측 직접 계좌 납부·민주납부특위 구성

대학당국, 복지개선을 협상카드로



한총련 8·15 행사를 뒤로 조성된 공안정국과 연일 계속되는 학원침탈의 여파속에 민주당부는 '부담한 등록금 인상지지와 교육재정확보'라는 슬로건 아래 등록금 투쟁의 목적지를 향해 꾸준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지르용지 취소라는 돌출변수에

투쟁을 만들어내겠다고 결의했다. 일관수련회 자리에서 만난 박명규(중앙·이원) 3군은 "민주납부부 승리한다는 믿음과 외대인과 함께한다는 생각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긴 것이다"라며 총학생회가 앞으로 투쟁한 활동과제를 내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는 현재 1차 납부 연기를 시작으로 납부연기투쟁을 진행하며 납부방법을 총학생회계좌납부·직접납부로 전환을 했다. 또한, 개강전까지 민주납부를 주도적으로 고집하고 책임질 민납투쟁특별위원회(민납투위)를 구성해 민주납부에 대한 교양·선정·협상·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

총학생회장 박성동(상경·경원 4군)은 "2학기 투쟁은 철저한 학우들과 함께하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예매, 졸업생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한편, 총장, 학장일동, 재무처장

명의의 빠른 우편까지 도입하며 학생회 계좌 납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학당국은 지난 27일(화) 열린 정계교수간담회를 통해 올해 학생회 활동전담을 보고하고 '학생들이 등록기간내 등록할 수 있도록 소속학과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지도와 학부와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지도대책을 내놓았다.

평행한 대립속에 총학생회는 민주납부 투쟁과 함께 협상창구도 열어놓고 요구안관철투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학생처장 및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간의 협상은 지난 30일(금)로 5차까지 진척된 상태이나 내용상의 합의점은 미비하다.

대학당국의 한 관계자는 "등록금 인하요구와 관련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예이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해불가능의사를 표명하고 교육환경개선 등의 복지문제를 협상카드로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총학생회는 부

담한 등록금 산출 근거를 토대로 민주납부와 등록금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의 장기적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개강을 맞아 가시화될 등록금투쟁에 도서관 앞 벤치에서 만난 마인어와 예비졸업생은 "민주납부의 정당성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기에 취업이란 위험부담을 앞두고도 9월말까지 납부방기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총학생회가 이전과는 다른 활동모습과 명확한 투쟁과제를 내놔야만 좋겠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민주납부는 이렇듯 단지 학생회의 요구일 수 없다. 외대발전을 위한 열의와 외대를 사랑하는 7300의 외대인 것이다. 방종 한치의 타협도 없이 평행선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외대의 모습을 반성하고 '외대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굳게 뭉치는 것이 갈등해결의 열쇠일 것이다.

대학부



승차장 뒤쪽 하수구 근처에 쓰레기가 쌓여 그 침출수가 하수의 같이 배출되고 있다. 쓰레기 방치와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로 심각해지는 학내 수질오염에 대한 학교 당국의 대안이 시급하다.

김학영 기자

열살박이 7대노조 출범

장진 위원장, 노조 재건위해 노력할 터

1987년 처음으로 본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혁하기 위해 대부분 직원들이 힘을 모아 건설된 직원 노동조합(노조).

최근 몇년동안 위기에 직면했던 노조가 대폭 단장을 하면서 재기능을 그 어느때보다 공고히 할 듯 보인다.

노조 제 7대 조합장(장진 주임) 취임 및 중앙집행위원의 출범식 행사가 지난 8월 28일(수) 서울캠퍼스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울·용인캠퍼스 조합원 100여명과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최기원(한양대 위원장) 수석 부조합장과 서울지부수석 6개 대학의 위원장이 외부초청인으로 참석했고 대학당국에서 안병만 총장, 한상경총무처장, 남성우(한교과) 교수협의회장 박성동(상경 경원 4) 총학생회장 등 여러 단에서 참석하여 학내 3주체의 축하의 장으로 규모있게 치러졌다.

이철장 기획부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날 출범식은 박정열 정임 조합장 취임사에 이어 장진 신임 조합장의 취임사로 제 7대 노동조합의 공식출발을 선포했다.

단일후보로 입후보해서 장진 및 임원(김창호 수석 부조합장 박무성 부조합장)이 출석 조합원 83명 중 찬성 74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당선됐다.

장진 신임조합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그동안 침체된 노동조합을 새롭게 재건하고자 조직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대학당국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잘 이행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 및 복지증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내에서 대학평가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한 참의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내실있는 노동조합으로 안착시킬 것이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김창호 수석 부조합장은 △구성원들의 일상생활로 조합원의 권익과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며 부당한 인사조치를 배격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한다 △지주적 노동조합을 방해하는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단호히 배격한다 △교수들의 교권확립을 위한 노력과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조합원에 의한 행정자율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교육행정이나 간섭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골자도 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한 안병만 총장, 박성동 총학생회장도 축하와 연대사를 통해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것을 바라며 이후 교수·학생·직원 학내 3주체 서로 협력하면서 외대발전의 구심체로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박수범 기자

서울 도서관 지하, 보수공사 시급

대학당국 수리않고 떠넘기기

교내 건물안전진단에서 A급 판정을 받은 서울캠퍼스 도서관 지하매장의 부실공사가 뒤늦게 밝혀졌다.

도서관 지하매장 바깥쪽에 있는 지하 1층이 견고하지 못해 지난 7월 폭우때 물이 매장으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이와 관련 안전점검 담당직원 김병연씨는 "지난 수해때 빗물이 서서히 매장으로 들어오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바닥이 온통 물바다로 가득 찼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말했다.

영문을 풀었던 매장직원들은 지난 12월 초 컴퓨터 매장의 천정이 땅까지 한달란 물이 새 곳곳에 그릇을 받든 등 임시방편을 써왔던 사실을 미루어 재판을 우려해 후생부에 수리요청을 한 바 있다.

이와 후생부에서 몇차례에 걸쳐 사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학당국은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후생과장은 "시찰과 동시에 관리과와 총무과에 협조 의회서를 공문으로 발송했는데도 지금까지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보수공사가 실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리과에서는 "전혀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무엇보다도 관리과에 직접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사찰을 나간 관리과 직원들은 도서관 지하매장 점원들의 물이 다시 셀 수 있지는 않는지는 질문에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과 직원들은 동 지붕의 전조성 부실은 인정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동 지붕의 재건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재정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공사를 미루고 있었다.

이외에도 지하매장에는 화재발생 시 필요한 소화기 조작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대피를 위한 비상용도로 출입문 하나 뿐이었다.

대학당국은 건축공사로 중요하겠지만 내부의 하수관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도서관 지하 매장은 작년 12월부터 보수공사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확한 실사 조사를 통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전영수 기자

학사관리 강화될 듯

교수간담회에서 밝혀져

96년 하계 정계교수간담회가 지난 27일(화) 용인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각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하급 박사의 '현대인의 건강관리' 특강, 교수협의회의 회, 단과대학별회의가 진행됐다.

학생들의 복지개선 개선을 위해 학내 학과에 들어간 후생복지관을 준공식이 리셉션 형식으로 치러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안병만 총장은 "한총련 통일축전이후 교육목표부터 학회와 학사관리지침이 내려오고 있다"며 교수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고 국제대학선정과 관련된 신출점을 당부했다.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4개 도시순방 입시설명회와 대입모의의술고사 실시에 관한 방중 업무보고와 97년 대학입학설명회, 2학기 신입교원 24명에 대한 보고를 했다. 용인 교무처는 강의시간표 변경 자체와 출석부 점검 및 학점관



코오롱 국제화 추진전략 시리즈 1 - "국제화 전문가" 편

Do in Rome as the Romans do!



One & Only

코오롱은 세계 곳곳에 국제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재를 세계일류로 만들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됩시다"

국제전문가를 향한 대장정에 오르는 젊은 코오롱인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자기 분야의 내로라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언어와 풍습, 문화와 역사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돌아오는 코오롱의 엘리트들.

코오롱은 전사원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화 전문가 해외파견, 사내/해외 MBA 교육, 신입사원 해외연수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세계화 프로그램으로 기업에 역량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강력한 리더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국제전문가그룹 - 코오롱, 세계를 공략할 당신의 베이스캠프입니다!

코오롱

〈글 실는 순서〉

1. 외대인의 인식
2. 지역학의 국내 수요와 본교의 수준
3. 본교 지역학의 제도적 문제
4. 타대학 탐방
5. 학과에서의 지역학
6. 대안-지역학 발전을 위한 적당회

외대의 살길은... 지역학? - 지역학의 현황과 문제점 1

“들어올때 공부, 나갈때 취업이죠”

교수충원, 커리큘럼 등 제도적 문제 산재

‘외대의 살길은 지역학’, ‘이학을 공부하는 것으로만 안된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흔히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게 되는 지역학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원과정에서 지역학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외대의 지역학은 과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지역학에 대해 학부생 300명과 대학원 지역학과 학생 15명(전체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학부생들의 경우(그레프3) 지역학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역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지만 그것이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지지는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응답자중 졸업후 지역학을 배울 의향이 있는 사람은 30%정도로 나타났다. 또 배우지 않거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만약 배운다면 지역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나 선호때문이라고 답해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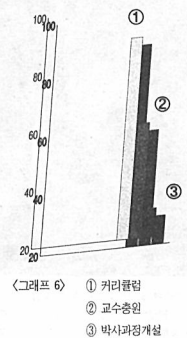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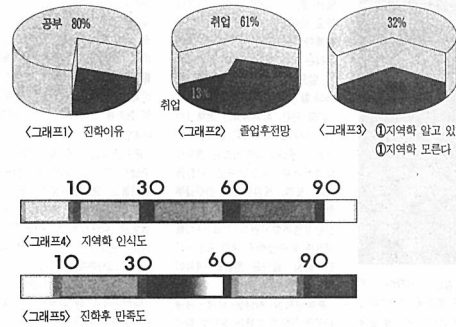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로 지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은 이와는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응답자 중 80%는 지역학에 들어온 이유(그레프2)를 ‘학문적 흥미’로 공부하고자 한다고 답해 학부생들과 일치했으나 학과에 들어온 이후 만족도(그레프5)는 40%를 밑돌았다. 또 이와 함께 졸업후에는 계속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은 박사과정 진학이 13%, 해외유학이 26%였고 취업이 61%로 나타났다(그레프2). 원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줬다. 진학당시와 현재의 목적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외대내에 박사과정이 없다 28%, 외대내의 학문연구 중도가 조성되지 않다 20%, 학교측의 지원이 없다 26%, 커리큘럼의 문제 13%로 답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학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그레프6)으로는 중추적인 커리큘럼을 찾아볼만 했고

전임교수제 도입 등 교수충원의 문제, 박사과정의 개설 등을 들었다.

정부는 올해 대학원원 선정에 있어 지역학이 개설돼있는 대학원을 우선시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본교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서울대와 이대가 대학원에 지역학과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본교의 지역학은 과연 어떤 위치일까?

올해부터 학부에도 지역학이 도입된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반학생들에게 지역학은 아직도 막막하기만 하다. 정확한 현실을 알지 못하는 막연히 지역학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선호도와 현실은 매우 동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실제 지역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제도적 문제가 가장 크므로 학교측의 시정이 필요하다.

학술부



한국 언론을 진단한다 1 - 한총련에 대한 왜곡 보도

한총련, 북의 직계부대. 적대세력으로 매도
언론, 공안탄압의 도구로 큰 몫

언론은 이번 연대사태를 맞는 전경과 격한 학생, 나아가 '북의 하수인' 한총련과 정부의 대립으로 몰고 갔다. 위 사진은 '문인'에서 보도된 한총련의 보도 형태이다.

신문의 한총련 선명주장
강경진압 부추기

공안언론의 관용이 보이지 않았다. 특별명 '한총련'을 붙여, 도시 하나를 삼켜버리는 연쇄폭발 '트위스터'를 방불케 한다. 최근 한총련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보다는 '가설'과 '판단'으로 일관, 일방적으로 정부주장만을 전달해 학생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학생운동의 폭력성과 친북성향 부각 및 도덕성 침식배기에 주력, 한총련을 적

결해야 할 친북과공적세력으로 여단하는 등 대개 시정 태도를 보여 5공 시절 공안언론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4부터 23까지 10일동안 한총련 사태를 다룬 중앙 일간지의 사실 주제는 학생운동에 대한 '선명'이다. 공안기관의 보고서들 그대로 인용한 듯한 어투와 주장으로 일관, 강변일변도로 치달고 있는 사실은 계제하에서도 단일 사안으로 대대한다. 한계대를 제외한 9개 일간지의 관련사실 수는 모두 60편, 이 가운데 조선일보가 11편의 사실을 게재, 다른 신문 사실량의 두

배에 달했다. 또 1면 Top으로 2면이나 올라가는 등 연일 1면과 사회면에 불발이 실은 한총련 관련기사와 사진은 계제하와 크에서도 단연 다른 신문을 압도했다. 9개 신문 사실은 예외없이 한총련을 친북 이적단체로 일괄적으로 규정, 정부에 '이런 기회에 뿌리를 뽑으라'고 소리를 높였다.

○ [최파괴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조선노동당 재남(在韓) 명동대원, 북의 직계부대, 김부(子)의 충실한 하수인 송배, 최파괴 특공대] "그들은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다"(조선일보)

○ [도시계발로 더 더 조지화 군사화 돼 있는 최경 작대배, 한중도 안되는 용공집단 친북 폭력집단] "가차없는 용공이 필요하다"(동아일보)

○ [북한정권의 폭주각시, 북한 대남전략의 앞잡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척결할 것" "학생운동이 정상을 되찾아 한 정권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다면 다른 어떤 지책이 못지 않다"(한국일보)

○ [북의 폭주각시 단체, 북의 하수집단, 체제 도전 적대세력] "북측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내

려온 인민유격대" (세계일보)

○ "국기를 흔드는 김일성주의자들의 반국가적 행위에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신공안정국'과는 무관하다" (경향신문)

신문은 한총련 시위집회에 '불화해' 해갈'이란 것으로 폭력적인 과잉진압도 상정했다는 의사가 깔려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사실 [경찰진압의 문제에서 "이런 경찰의 진압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문제는 '과잉'이 아니라 '과소'의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시위대가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같은 살상성으로 경찰에게 공격을 퍼붓는 데 경찰은 최루탄만 쏘아냈다..."]에 한탄했다. 19일 박일을 경찰창경의 폭력시위 참가자를 불사 발인 나옴 뒤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 진압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으로 오인하기 십상인 주장이다.

정권의 영부새로 전락한 방송

방송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신문에 뒤지지 않았다. 관련 보도 130건 중 정부 검찰 경찰

의 발표나 분석에 근거한 쪽지수가 65건에 달해 65%가 정부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총련의 취재원이나 보도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학생들의 주장이나 입장은 외면하는 등 심한 편향을 보였다. 방송의 이 같은 보도태도는 뉴스 제작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 폭력배후 철거 추적, 폭력시위 응징 촉구, 폭력이 통일운동인가, 한총련 이적성 확인, 커져가는 시민불복, 최경 학생운동 문제, 통일방해 시대착오(KBS)

○ 한총련 집회강제해산, 화염병 언제까지, 폭력시위 중지 촉구, 한총련 와해방향, 보안법 적용 최고령(MBC)

○ 한총련 곳곳 격렬시위, 한총련 이적, 괴적 폭력시위의 일관, 좌익집단 방북배향, 전원 현행법 간주, 북전력과 일치 한총련, 검찰 주동자 잡기 주력, 한총련 배후 발본색원, 이적성 뚜렷, 살상무기 시위용품, 국민대다수 의견(SBS)

한편, 방송뉴스의 경우 화면평과가 유난히 두드러졌다. 한총련의 폭력성과 친북성향을 부각하기 위해 항상 붉은 색면을 배경으로 깔거나 채색한 크로마키(화면의 옆에 위 시각화 그림)

를 사용했고 학생들의 공격적인 시위장면을 연속편집, 슬로모션까지 동원해 시위의 과격성을 강조했다.

한총련 사태에 대한 대부분 언론보도는 한국 언론사에 토해나고 굴절과 왜곡의 정형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도 "보도과정에서 한총련이나 방정학원의 주장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연대에서 저러한 행사가 무엇인지 거의 알 수가 없었다"고 술회했다고 한다. 이번 보도를 두고 'SW 1H'가 아닌 '1W 1H'라고 지적했다는 한 언론학자의 말은 뜻하는 바가 크다. 기사구성의 기본원칙 중 '왜'가 빠졌다는 것은 일선 기자들에게나 독자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신미희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

한국 언론의 희망찾기는
672호부터 9면에 실립니다.

ANYTIME ACCESS

지금, 선경에 접속하십시오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선경을 키웁니다.

“1년, 365일 선경이 인재를 모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열린 선경과 만날 수 있습니다.

-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연중상시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선경채용상담실에서 연중상시로 입사면담을 물론 지원서류 교부받을 수 있으며, 365일 인터넷(<http://www.sk.co.kr>)으로 지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선경채용상담실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선경 - 채용상담전문가의 입사면담과 선경종합직접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소양을 개발하게 됩니다.

인재를 키우는 선경의 문을 지금 두드리십시오.

- 대학 4학년 이상의 학생이면 누구나 선경에 응시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입면면담에서 교양강좌, 어학연수, 해외연수 등 선경의 다양한 인재양성 Program이 귀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SUNKYONG
鮮京그룹

• 선경채용상담실 02-728-0212, 0222 FAX: 02-753-7401 • Web Homepage <http://www.sk.co.kr> • E-Mail join@sk.co.kr

96 범민족대회 보도 및 해설

평화와 민족대단결 향한 힘찬 출발

한총련 탄압...정권안정화와 보수층 끌어안기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의 기초에 연세대에서 개최된 ‘제 7차 범민족 통일 대추전’과 ‘제 7차 범민족 대회’는 정부의 극심한 탄압속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경쟁 전압으로 인해 모든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행사 시간이 단축되는 등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 또한 지금까지 시위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취재단 사진, 열기 등)은 대추전, 연방제, ‘부상자수’를 뛰어넘는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결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12일(월) 도산과 양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 7차 범민족 대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예정된 13일(화)에 노년국장에서 열기로 했던 ‘범민족 통일 대추전’ 개막식과 ‘통일노래합창단’은 경찰의 원천봉쇄 조치와 지역현원 학생들의 연세대 진입이 늦어져 14일(수) 열렸다.

개막식에서 한총련 의장이자 범민족 남북본부 의장인 정명기군은 “우리 힘으로 범민족을 이루겠다” “이제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조국을 연방제로 통일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무평화를 없애고 세계평화를 이룩하자”고 연설했다.

이후 열린 통일노래합창단에서는 12개 팀이 참가하여 이중 ‘무평은 아름다워라’를 부른 조선대 노래패가 민족 대 단결상을 차지해 우승했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제 1차 남북·북·해와 청년학생 연석회의’가 정부의 입국 불허로 북·해의 대표가 참가하지 못



범민족대회는 끝났지만 공안탄압은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의 원천봉쇄에 대해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한 가운데 열렸다. 정명기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조국 평화와 민족 대 단결을 실현하는 방안’과 ‘범민족 청년학생 통일운동 강화·발전을 위한 과제’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했으나 경찰의 학대 경찰로 인해 몇 가지 안건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채 끝났다. 경찰이 철수하지 이날 오후 10시에 범민족 1차 총회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6 범민족 대회에 노년국장에서 열린 범민련과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노년과 청년학생 등의 내용을 담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6 범민족 회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다음날 한총련은 북한에 파견된 대표와 연세

대 기계공학과), 류세홍(조선대 치의학과) 등 두 범민족대표를 맞이하고 “문민정 권위와 시대 선봉을 위한 출정식과 16일 금요일의 전·노 공파에 맞춰 ‘학생자세’에 대한 범민족 최고령 신고를 촉구하는 한총련 결의대회’를 경찰의 경쟁 전압과 학생들의 안전 카를 보장하기 위해 취소하거나 연기 했다.

학생들은 대회를 평화적으로 열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집회하기 신성을 내고 15일 목요일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진 해산 한다며 발표했음에도 정부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거부한채 대의 첫날부터 초강경진압으로 일관,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수) 연세대학을 저지하고 연세 학생회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은 10여대의 헬기와 중장비를 앞세워 진압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진압에 맞서 학생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2000명의 학생과 경찰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경찰의 과잉 진압이 시달렸다.

경찰은 16일(금) 금요일에 학교에 침입한 후 교문으로 철수하지 않고 학생들을 이과대학과 종합관에 붙여 놓고 봉쇄해 학생들을 고립시켰다. 농성동안 경찰은 일체의 음식물, 심지어 의약품 반입까지 금지해 학생들을 굶주림과 고열에 시달리게 하였다. 게다가 20일(토) 새벽 경찰은 종합관에 강제 진입해 학생 2,193명을 연행했고 종합관 진입과 함께 이과대학에 있던 학생들을 탈출을 강요해 이중 1,032명을 연행했다.

대단 특강은 구호를 외치면서 열린 범민족을 위해 유독 관여하여 이적성 시비가 붙었다는 것이 었을 결국 강경대통령에게 접근 하다가 붙어 경찰의 진압과 내내 대상을 겨냥한 보수층 끌어안기로 보인다. 이런 증거들은 8·15특사와 구 여러 비리 인사들의 시선과 요충 정가에서 나오는 전·노 시민들에서 볼 수

에, 이와 관련 한총련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한총련이었다”며 “공안 전국은 투쟁으로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연대항쟁 이후의 신문을 찾아

전경에 의해 짓밟힌 그날의 함성

지난 20일(화) 연세대에서 장장 일주일 만에 끝난 장기 투쟁을 마친 후 어린 2주일이 지난 시간이 흘렀다. 기자는 연세대 투쟁을 하며 가까이에서 지켜 본 시민들의 반응을 알고 싶은 마음에 그 후 일주일 지남 30일(금) 신문을 찾았다.

신문은 그 날의 후유증을 정리하려는 듯 여러 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기사를 맞았다.

그 날의 함성은 신문 어느 곳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주위는 내노신인을 끼려는 상인들의 본주한 손놀림으로 부산한 장이었다. 주위를 둘러 보며 더욱 고산에 다다랐다.

연세대, 2만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폭력적인 부수되었던 ‘국가보안법 철폐, 미제국’의 구호를, 첫 발걸음을 옮겨지던 연세대 정문은 전경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뚫힌 강경진압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종합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구보존으로 시비가 분분한 그 곳, 처음으로 시선에 잡힌 풍경은 학생들의 기념 촬영이 있었지만, 우스웠다. 학생들의 의미를 무참히 재민인 듯한 처사였기에, 임계로 걸어 올라갔던 종합관의 분위기는 처음에 사람에겐 무척이나 답답했다. 안의 내부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게 통제하고 있었다. 게다가 인터넷은 사절이었다.

관리직원들은 영구보존본들의 명분을 예시 내세웠다. 밖에서 지켜보는 수 밖에 없는 도리가 없는 듯 했다. 종합관은



연세대 종합관을 천정당사장으로 영구보존하는 일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실제로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다.

마치 숲 한가운데 열거니 우뚝선 거대한 성지였다. 거기서 기자는 직원 한 분과 만난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의도와 생각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 너무 심하지 않나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학생들의 입장을 왜곡해 보도한 언론에 대해 책임도 많다’면서 “많은 것이 여전히 숨겨지고 왜곡된 현실에서 이렇다 저렇다 삼라만상은 결론지은 건 위험한 처사 같다”고 덧붙였다. 끝내 이들을 밝히지 않으려는 그 직원을 뒤로 하며 이 시대가 과연 문명사대인가 하는 여하가 없는 반문을 하게 되었다.

연세대를 밖으로 따라 걸어 나오면서 연세대에서 노점상을 하는 임순화(34)를 만났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연세대 투쟁단에서는 장사들

통 못 할 집에서 지켜왔어요. 매상이 많이 떨어져 상가 및 노점상 쪽에서는 물상이었구요”하며 웃었다.

“연세대 한총련 범민족 통일 대추전이 1년에 한번씩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갖고 이번엔 유난히 크게 대응한 건 내내 대상을 노리고 정부 쪽에서 벌인 짓이지 도를 일러요”라며 “전경들도 아무런 지시를 받고 하는 짓이리다 같은 대학생으로서 너무 심하게 대항한 것이 아니요?”라며 반문했다.

현장 취재를 마치고, 언론과 권력의 소리없는 합작품인 한총련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기자는 군사정권 시절의 학생탄압과 별다름없는, 오히려 더욱 더 교묘해져 가는 문명 정부의 탄압에 다시한 번 치를 떨게 됐다.

염혜진 기자

96 범민족대회 숨겨진 뒷얘기

올해 범민족대회는 사상 유례가 없는 강경진압이 펼쳐졌다. 이미 황간에서는 ‘연대항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 편집자는 그 기간에 있었던 부끄러운 기록들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그리고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지만 험담 농성중에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다운 얘기도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최대의 병력, 최악의 진압

올해 연대항쟁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초강경 살인진압이 자행되었다. 그 때 따라 여러가지 신기록들이 쏟아졌는데--

먼저 이번 연대항쟁과 관련된 연방제 인원만 해도 사상 최대인 5848명에 이르고 구속자도 86년 연대항쟁 이후 최대인 462명에 이른다. 불구속입건이 3341명이 늘어 이후 구속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번 연대에 투입된 전투경찰 병력만 해도 2만 여명이 넘는 숫자였고, 진압방식도 헬기의 태러진압부터까지 동원해 군·경찰을 발발해 할 정

도였다. 그리고 헬기 2대를 통해 하루에 6만여명의 최후방을 뿌려 대고 하루에 7억 원의 최후방을 학생들에게 쏟아냈다. 이렇게 엄청난 진압을 하니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길 수 밖에. 게다가 이 정도라도 모자라 앞으로는 고무탄과 전차, 그리고 투발방패까지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초코파이 하나를 24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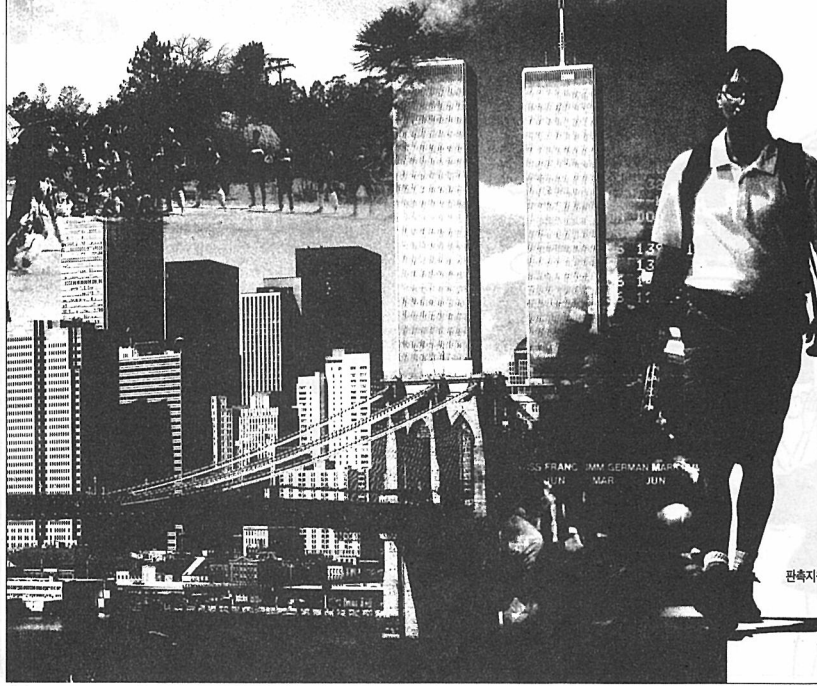
16일부터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있었던 종합관과 이과대학 건물에서는 사수대들과 학생들간의 밀음과 사정이 빚을 뿔었다. 경찰은 음식과 의류로, 그리고 여성생리용품의 반입까지 통제하는 민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사수대 몇 명이 폭탄 바 개개로 나가 두 명이 먹을 것을 사고 나머지는 뒤늦은 경찰을 막아 음식물을 사오기도 했다. 또한 여학생들이 생리용품이 없어 고생하자 사수대 경찰의 눈을 피해 일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생리대를 훔쳐오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강한 학생들은 서로를 잊지 않았다. 초코파이 하나를 24명이 나눠 먹고, 조음반과 컵까지 따서 먹었다고 한다. 또 라면 하나를 끓여 사수대와 학생들간에 서로 먹여마요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사랑과 믿음의 종자들’은 흔하지만 찾기는 힘든 희망을 찾았다.

전경, 우리도 ‘소원은 통일’

17일 밤 9시경으로, 오점부터 시작된 이과대학 건물 침탈도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물러가고 난 후, 간장갑에서도 학생들은 자율적인 규율을 운영함으로써 잠정 안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전경을 향해 외쳤다. “우리가 왜 적처럼 싸워야 할까?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현 정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방송은 전경과 학생들을 일시에 숙연하게 만들었다. 또 서로가 적이 아니라 갈라진 조국의 땅에를 묶어준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서로를 하나로 묶어내기 시작했다. 그 후 전경과 학생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같이 불렀다. 그리고 사수대들이 한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손을 주며 ‘적용처를’을 전경들에게 들려주며 그에게 맞춰 전경들과 반대를 흔들어 춤을 쳤다. 그러자 잠시 후, 전경에게서 담가가 들려왔다. “해 저문 소양강에” “자 이제 노래를 들었으니 담배고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담배를 나눠봅시다. 하나, 둘, 셋.” 그 때 앞에서 울고 있던 한 여학생의 말이 생각난다. “오빠, 이렇게 사이좋게 놀고 이따가 또 들을 건지고 싸우나요?” 과연 이 여학생의 물음에 답은 무엇일지? 이렇게 17일 밤은 지나갔다.서로가 들을 건지고 머리가 제지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그리고 누구 때문인가? 그 때 외쳤던 마지막 구호가 생각난다. “전경·학생 한나되어 감성감정 태도하자”

외 대 만 평





세계여, 내가 간다!

아프리카 오지의 한 부락에도,
뉴욕 맨하탄의 작은 모퉁이에도
한화종합화학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도전정신 -
미래를 위한 창조적 지 -

한화종합화학은 전 인신인원을 대상으로
‘해의도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화종합화학

한화종합화학 인신인원
이 원 회

통일의 함성마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땅



1. 8월 13일(월) 조국통일범민족대회 남측본부 추진위원회는 연세대에서 제7차 조국통일범민족대회(범대회)와 제6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총일축전(범청총)을 개최하였다. 연대 주변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2만여 전투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은 원천봉쇄를 하겠다며 연세대에 대한 사전 수색영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범청총은 대회개회 전부터 경찰측에 대회를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경찰측은 이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슨 과격사위요? 최후탄 피하기가 바빴는데..."
지난 8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제7차 조국통일 범민족 대회 및 제6차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총일축전이 열렸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연세대 원천봉쇄와 더불어 참가자 전원검거를 목표로 한 대대적인 범대의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대회 참가자들과 큰 충격을 빚었다. 수 많은 이들이 다쳤으며 참가자 중 3000여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500여명이 구속되었다.
이에 밤 늦추어 대다수 기성연론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제 권파적이고 선동적인 보도로 한층편을 왜곡했고 경치권 역시 냉전논리 가득한 논평으로 학생운동을 평가절하했다.
이번 사건은 한 정부가 가지는 '민주'의 한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는 민주적 토양의 부실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편집자



2. 8월 14일(화) 새벽 연세대 노천에선 멀리 퍼져 소리를 반주삼아 통일노래연미당 공연이 열렸다. 하루 내내 연세대 여러 출입로 앞에서는 경찰의 원천봉쇄에 발이 묶인 범대회 참가자들이 에게 진입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수대와 전경들의 마찰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행사장인 연세대 안은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축축들이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늦은 10시경 범대회 통일문화축전 및 출범식이 연세대노천에서 열렸다.



3. 8월 15일(수)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모인 3만여명의 시민·학생은 이른 7시까지 통일문화축전 및 출범식을 마치고 남북해외동포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폐막식이 시작되던 늦은 2시경 4대의 페퍼로 그와 12대의 할리데이비슨을 동원한 경찰의 1차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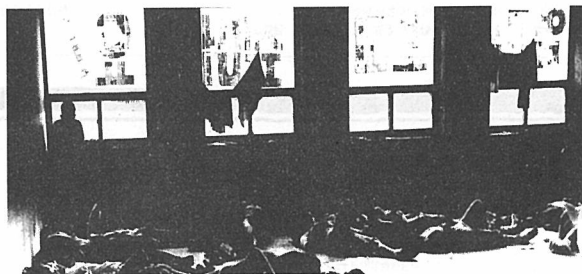
4. 하지만 시민·학생들이 주축이 된 범대회 참가자들의 저항은 거세었다. 연대안에 들어왔던 6000여 전투경찰은 200여 사수대에 의해 작전 개시 2시간 만에 정문 밖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언론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채 오직 그들을 폭탄의 개릴리로, '별장'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1주일이 넘도록 국민들은 때마침 냉전논리에 불안이 일어나 왔다.



5. 8월 16일(목) 경찰은 연세대 정문을 포크레인으로 들어 열고 건물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깨면서 2차 진입을 시작했다. 공대들에서 공부하던 연대생들이 '이 xx들이 왜 남의 학교 '부수냐'며 항의했지만 되돌아온건 최후탄이었다. 연대교정은 탄피와 돌 횡령액, 최후탄 등이 뒤범벅이된 전쟁터였다. 경찰의 무리수에 많은 수의 전경과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꾸만 쓰러져 나갔다.



7. 8월 18일(토) 계속되는 고압으로 탈수중 세, 구토, 상처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가운데 경찰은 의약품은 물론이고 여성용품까지도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런 가운데 혼수상태에 빠진 한 여학생이 들것에 실려나가며 울먹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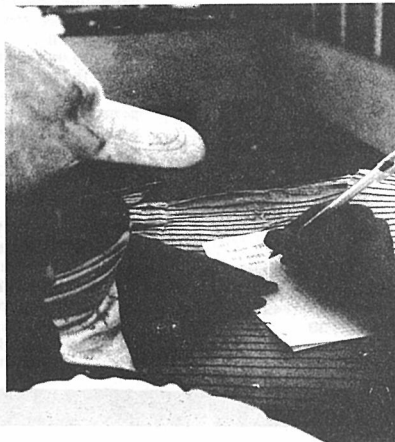
8. 8월 19일(일) 악취, 더위, 배고픔, 공포, 긴장이 들리는 할리데이비슨 소리, 최후탄소리는 소리. 극한 상황속에서도 학생은 이성을 잃지 않고 상황을 견디어 나갔다.

모든 중요한 기자재들엔 '조심'이라고 써붙이며 주의를 하였고, 굶주렸지만 음료수 자동판매기도 건드리지 않았다. 모든 파는 전투경찰의 작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6. 8월 17일(금) 16일 2차 진입에 실패했던 경찰은 연대주변에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은 무조건 연행하는등 연대주변을 고립시대로 만들었다. 경찰은 3차 진입을 통해서 거주 불리수요인을 교문 밖에서 이과대,종합관, 인문관으로 몰아들었다. 연대에서는 고립되어 있는 범대회 참가자들의 아 내 동생도 전경이다. o.o파출소에 있다 '백골들이 밥 먹었다. 내 수도를 많이 먹었다'는 위임이 계속되었다.

제작:사진부



9.한 사수대원이 한손에 펜을 들고 한손에 쇠파이프를 든채 이과대 옥상에서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전해 줄 축하글을 쓰고 있다. 멀리 전경들이 보인다.

10. 87년 정권의 폭력에 의한 한 젊은이(고이환)의 죽음앞에 분노했던 '군사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던 망심가가 있었다. 국보법 철폐를 여한소년의 손 꼭잡고 약속했던 정치인이 있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다. 이번 한층전 사태에 현 정부는 상식을 넘어서는 강경태도로 일선 경찰서의 '타협'의사를 묵살하면서 원천진압을 중용했다. 연세대 백암로의 이근 추모비 앞범민족이 전경의 군화발에 쓰러져있다.



이환일 추모비

대학단신

서울 민족자주학교 개회

8·15 대회를 앞두고 사경교향의 일환으로 민족자주학교가 지난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사회과학관 504호실에서 열린 이번 학교는 외부인사 초청강연으로 진행했으며 '한미관계' '통일방안' '현 정세와 통일운동의 목표'란 주제로 열렸다.

매일 약 40여명의 학우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학교에 대해 총학생회 정책국장 정지철(사학·독일어 4)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워도 진행방식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여된 것이 문제점이 있었다"고 평가를 했다.

서양어대 학생회 빈할 참가

서양어대 학생회는 지난 7월 26일(금)부터 29일(월)까지 3박 4일간 빈민 학생연대활동(빈할)을 수행했다. 동대문구 경동 3동에서 열린 이번 빈할은 현 정국의 빈민증상을 비관하고 절거민의 아픔을 직접 체험한다는 주제 아래 진행했다.

본교 이외에도 이화여대, 시립대, 경희대, 고려대 등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모의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절거민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으며 빈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수입발급 운동 등 여러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토론하는 주제별 마당도 열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호텔 방문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대진(영어 3)은 "현 정국의 빈민증상과 빈민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등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열려

제1회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학원경시대회가 지난 29일(금) 시청각 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에스파냐어 등 7개 과목에 480명의 학생이 응시했다.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영역에서 약 2시간 30분동안 치러졌다.

오는 13일(금)에 결과가 발표된다. 입상자는 외국어특기자 심사신청지역이 주어지며, 동상 이상 수상자는 대학입학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과목별로 상위우수자 3명씩을 선발해 통째발행증에 해당 언어언어에 이학언어의 기회가 부여된다.

김중희 이경 분향소 설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인제대에 있었던 제 6차 범청원대 통일 촉진 시위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김중희 이경 사망과 관련, 도서관 앞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회과학관 입구에는 김이경 사망에 대한 애도와 경향의 강경진압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후헌장 성명서가 부착됐다. 김두희(사학·독일어 1)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가 죽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게 분이며 김영삼 정권에 대한 분노가 솟아오른다"며 김이경의 죽음에 애도를 표명했다.

제2회 일원학교 개회

제 2회 일원학교가 지난 8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5대에 걸쳐 동대문 지역 총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주최를 맡은 사범대 학생회는 △분류한 교육실습기회 확대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모색 △새도교회의 모순 극복과 대안제시 등을 이번 행사의 의의로 내걸고 실습주위의 능동적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오전에는 영어, 영어, 역사 등의 학교 교과과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별활동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설해 봉사활동, 풍물놀이, 연극놀이, 민화놀이 등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와 관련, 일원학교 교장 사범대 학생회장 이원복(영문 3)군은 "성교육 등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싶었으나 교사들의 경험미숙과 자료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일원학교는 이외에도 고대 등 서울 시내 여러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문화 건설을 위해 사제복지 사범대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했다.

쌀수입반대 여름농활 수행 농민회·학생회 강화 발판 마련

농민회와 학생회 강화의 고두보가 된 서울캠퍼스 여름농활이 지난 7월 22일(화)부터 11일(목)까지 9박 10일동안 전라북도 순창군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농활행과 관련 순창군 학생회장 김창수(무예 4)군은 "농활기간중 농민학생 연설회와나 예년에 있던 편지지 같은 새로운 행사를 발굴했다"며 "이번 성과를 후속작업을 통해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학생의 사랑과 외로' 모자가지! 여름 농활 농민의 풍속으로'란 주제에 응인캠퍼스 여름 농활이 지난 8월 27일(목)부터 7월 5일(금)까지 9박 10일간 순창군 농민학생 연설회를 갖고 평가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농활에서는 연극과 풍물물

위로 한 풍산대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순창군 농민회와 연립을 돕기 위한 농활에 1000원 모금운동도 있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와 관련 순창군 학생회장 김창수(무예 4)군은 "농활기간중 농민학생 연설회와나 예년에 있던 편지지 같은 새로운 행사를 발굴했다"며 "이번 성과를 후속작업을 통해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학생의 사랑과 외로' 모자가지! 여름 농활 농민의 풍속으로'란 주제에 응인캠퍼스 여름 농활이 지난 8월 27일(목)부터 7월 5일(금)까지 9박 10일간 순창군 농민학생 연설회를 갖고 평가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농활에서는 연극과 풍물물

위로 한 풍산대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순창군 농민회와 연립을 돕기 위한 농활에 1000원 모금운동도 있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와 관련 순창군 학생회장 김창수(무예 4)군은 "농활기간중 농민학생 연설회와나 예년에 있던 편지지 같은 새로운 행사를 발굴했다"며 "이번 성과를 후속작업을 통해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학생의 사랑과 외로' 모자가지! 여름 농활 농민의 풍속으로'란 주제에 응인캠퍼스 여름 농활이 지난 8월 27일(목)부터 7월 5일(금)까지 9박 10일간 순창군 농민학생 연설회를 갖고 평가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농활에서는 연극과 풍물물

보직교수 발령 및 직원 인사 서울 학생처 5명 이동 최고

총무처는 지난 8월1일(월)자로 보직교수 인사발령을 통지했다. 인사내역은 서울캠퍼스 교수처장에 정실 교수, 연구협력처장에 자문

교수,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에 박기태 교수, 시청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은진 교수 등 4명이다. 또한 13일(월) 있는 직원 인사발

령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위원장에 장건태 등 18명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한편, 서울캠퍼스 학생처는 5명의 직원이 자리를 옮겼다.



장 실(교무처장) 박기태(교육대학원장) 구자용(연구협력처장) 이은진(시청관리처장)

양캠프 일꾼수련회 다녀와

응인캠퍼스 확대간부 수련회가 지난 8월 29일(목)부터 30일(토)까지 2박 3일간 충주 한양 유호초등학교에서 열렸다.

당초 7월말로 예정됐던 이번 수련회는 8·15평화통일 학내 학원로 인해 개강에 일박해서 뒤늦게 진행됐다. 연대 학생의 여러모로 적은 수와 일꾼들이 참석할 수 없게 된 이번 수련회는 2학기 학원기후와 무관할 수 밖에 없는 자리로 이뤄졌다.

한편 서울캠퍼스 여름 일꾼 수련회가 지난 7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2박3일간 80여명의 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 플리워터드 유호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일꾼수련회는 △상반기 학원기후와 무관할 수 밖에 없는 자리로 이뤄졌다. 연대 학생의 여러모로 적은 수와 일꾼들이 참석할 수 없게 된 이번 수련회는 2학기 학원기후와 무관할 수 밖에 없는 자리로 이뤄졌다.

또한 일꾼수련회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신력을 강화하는 관공로관과 새내기 정기자랑, 창의적인 산전전

을 고민하는 '몸으로 부대끼는 의식과 사의'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던 김지현(동양·일본어 2)은 "각 단위 일꾼과 결집이 시간이 부족해 많은 일원이 참가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이번을 계기로 민주남부 투쟁에 대한 결의를 높일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중대 교수 정년퇴임식

응인캠퍼스 자연대 화학과에서 18년간 재직하던 안중대(65)교수 정년퇴임식이 지난 31일(토) 서울캠퍼스 대학원 소강당에서 치러졌다.

퇴임식은 교수이력 소개와 화과장 인사말, 동창자 서, 기초과학연구소 책자 편찬 소개 및 재학생 송사, 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단한 식사가 뒤따랐다. 안교수는 경북 성주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문리대 화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브라운 대학을 수료했다. 자연과학대학이 신설된 지난 해부터 안교수는 본교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

본교 국제학술교류협정 활발 중국 북경대 등 5개 대학

국가간 학문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학술교류 협정이 최근 프랑스 사브와 대학을 비롯한 5개 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전세계교수간담회(27일)에 연구협력처는 5월부터 미국 아칸소 대학 △태국 쉐라배전대 대학

학과 △프랑스 사브와대학 △중국 북경대학 중문과 △독일 자유베를린 대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고 있다.

중국과 맺은 지난 7월 8일(월) 북경대학 중문과와 과 차원의 학술교류를 맺고 학술교류협정을 조인

민중남부에 참여하는 학생을 만나

“외대생들의 입학성적이 아깝습니다”

이사학



상으로 참 관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외대의 열악한 환경은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거 같아요. 그걸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바꾸어 가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며 민주남부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한때 재수를 결심하기도 했다는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대생들의 입학성적이 다른 중상위 대학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 자신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는지 속스럽게 웃으며 이유를 설명한다. "저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할 겁니다. 최근에 경기대학생 제작문제에 대해. 고시원에도 개성애자 할 점 있는데 있다며 '타학교에 비해 지원이 너무 부족해요. 똑같은 타 학교는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는데 우리는 학생들끼리 겨우 초빙해오는 실정이지 않습니까?'라고 했어요. 또한 고시원으로 참여하는 인원들 때에 가까이 되는 데 지원금도 크게 늘었는데 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취재하는 동안 앞에서 계속 서터를 불려 대는 것이 속스럽고

강조되는지 연신 멍하게 웃으며 나름대로 외대 발전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고시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것이 외대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할 맛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 자신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는지 속스럽게 웃으며 이유를 설명한다. "저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할 겁니다. 최근에 경기대학생 제작문제에 대해. 고시원에도 개성애자 할 점 있는데 있다며 '타학교에 비해 지원이 너무 부족해요. 똑같은 타 학교는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는데 우리는 학생들끼리 겨우 초빙해오는 실정이지 않습니까?'라고 했어요. 또한 고시원으로 참여하는 인원들 때에 가까이 되는 데 지원금도 크게 늘었는데 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취재하는 동안 앞에서 계속 서터를 불려 대는 것이 속스럽고

강조되는지 연신 멍하게 웃으며 나름대로 외대 발전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고시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것이 외대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할 맛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 자신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는지 속스럽게 웃으며 이유를 설명한다. "저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할 겁니다. 최근에 경기대학생 제작문제에 대해. 고시원에도 개성애자 할 점 있는데 있다며 '타학교에 비해 지원이 너무 부족해요. 똑같은 타 학교는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는데 우리는 학생들끼리 겨우 초빙해오는 실정이지 않습니까?'라고 했어요. 또한 고시원으로 참여하는 인원들 때에 가까이 되는 데 지원금도 크게 늘었는데 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가등록 기간안내

1996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추가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등록기간 : 1996년 9월 5일(목)부터 1996년 9월 12일(목)까지
 2. 등록장소 : 제일은행 본점 및 지점 국민은행 본점 및 지점
 3. 등록금액 : 등록금 납부 통지서 참조
 4. 장학금 수혜 학생은 장학증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 할 것(등록금 납부 통지서에 장학금이 표시된 학생은 제외·차액만 납부)
 5. 등록금 영수증은 제발행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 할 것
- ※ 추후 등록기간은 없으며 등록기간 외에는 등록금을 수납하지 않음. 기타·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경리과 또는 응인캠퍼스 총무과에 문의바람

1996. 9. 2.

재무처장

'96년도 예비군 기본교육 실시

'96년도 우리대학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예비군대원은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와 학과(대학원생은 교과과)사수명령에 철히 수렴하고 도착한 학생은 비상계획관실(예비군본부)에서 확인한후 수렴하여 주기 바랍니다.

— · 다 음 · —

1. 교육훈련일시 : '96.9.2(월)~9.6(금)
2. 장 소 : 57사단 222연대 2대대 급곡교장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3. 유의사항
 - 가. 학과(대학원)별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일정을 정확히 숙지 할 것
 - 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는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니 필히 수렴 할 것
 - 다. 수송버스 이용희망자는 06:50까지 학교에 도착 바람
 - 라. 개별입소시에는 07:50까지 교육장에 (미강시 소재 급곡훈련장) 도착함 (대중교통 안내 : 소집통지서 뒷면 참조)
 - 마. 교육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외의 교육은 절대 입소불가
- ※ 지연도착자(08:00이후 군부대 도착자)와 복귀미반자(탈도, 군화미착용, 예비군복과 모자착상 미일치 등)는 귀가조치 및 불참처리함

1996. 6.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안내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예비군(대학원 석·박사과정 포함)은 재직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1. 전 · 출입 신고
 - 가. 입학, 복학, 편입학, 복수전공자, 재입학자 전입신고
 - 나. 휴학 및 제적생(자퇴)전출신고, 사육방식 14일 이내에 비상계획관실 본인이 전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 전 · 출입 신고시 비서류
 - 1) 신고서 1부(양식:비상계획관실 비치)
 - 2) 학과장 신고서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 지참
2. 현주소 변경시
 - 가.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 직원은 현주소 변경시 비상계획관실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법규위반 경우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 ·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현주소변경 신고지침 제15조⑨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996. 6.

서울·응인 비상계획관실장

외국어외화 대학학과정 모집

1. 모집학과·인원 및 시간

과 목	수업시간	단 계	수업요일	수업요일
영어	17:30~19:20	(1,2,3,4)	월, 화, 목	15명

2. 지원자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 (타 대학교 학생도 수강 가능)
3. 선발방법

선착순 등록 마감
4. 반편성

'96.9.21(토) 15:00 본 연수원에서 분반시험을 실시하며 분반시험 결과는 '96.9.25(수) 연수원 게시판에 공고하며 전화문의 가능함
5. 등록기간 및 접수처

1996.9.2(월)부터 선착순 마감. 연수원학교과
6. 제출서류

등록원서(연수원 안내설 비치), 증명사진 1매(원서부착용), 원서전형료(5,000원)
7. 수강료

○ 신규등록 : 290,000원 일시납(교재대 본인부담)
○ 재 등록 : 260,000원 일시납 (교재대 본인부담)
※ 문의전화 : 외국어연수원 교과과, 961-4174/5,962-7119

1996년 9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한 철저한 신용사회

내가 유럽에서 가져온 거품을 타거나, 여행자를 불러 보면서 대개 가족이나 단체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동양인이었다. 유럽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거의 혼자 배낭 하나와 침낭 하나를 짊어지고 지도를 손에 들고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내가 노숙을 하며 만난 한 할라리 대학생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밤이 되면 그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건문을 넓히기 위해 이러한 여행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유럽 거리를 돌아다니니 보면, 그가 말하는 약자를 손에 들고 광장을 지하철에서 연주를 하며 돈을 벌며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광장에서 연주를 하며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광장 위에 그림을 그리며 미술용품 살 비용과 여행비용을 함께 벌며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또 그 곳 사람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음악이나 연가, 그림을 보면 약간의 돈을 놓아 주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학생들은 어떠한가? 반도국이며 북으로는 휴전선이 놓여 있어 외국여행은 하기 힘들다고 해도, 국내 여행도 제대로 하는 대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방학 때면 귀찮아서 집에만 있거나, 여행지를 다녀와서 돈도 타서 며칠 자신이 돈도 모으거나 부모님께 돈을 타서 여행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 오는 일들이 많다. 이는 유럽처럼 여행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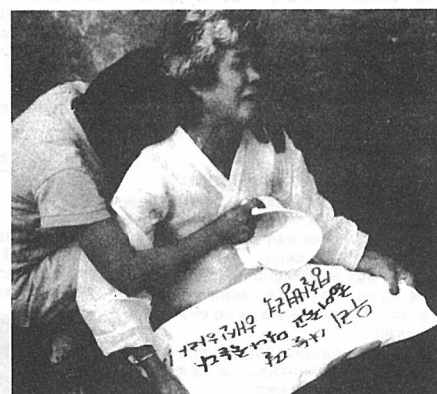
젊은이들이 쓴 가격에 사고,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도 많지 않다. 물론 각 도시마다 한 여관은 있었지만 한 방에 5~6명씩 모은 사람끼리 만나는 이야기까지 하며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 유스호스텔의 맛이 아닐까? 유럽은 각 도시마다 역에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그 곳의 지도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숙소 예약 및 기타 예약까지 다 해준다. 환전소도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국내인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유럽여행 중 가장 놀랄만한 점은 그 사회가 신용 사회라는 것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어디의 지하철도 우리나라처럼 차단기가 있거나, 역무원이 서있지 않다. 그냥 단지 개인이 알아서 표를 사서 기계를 타고 타는 것이다. 버스도 마찬가지이다. 기차는 객차에서 정표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 안에서 차장이 표 검사를 위해 돌아다닌다. 차장이 올때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무임승차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표를 끊지 않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신용사회임을 절실히 느낀 곳은 스위스였다. 유럽에서 자전거를 렌트하여 달리던 중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그래서 잠시 자전거를 묶어놓고 속속에서 쉬려고 하는데, 나에게 준 자물쇠의 열쇠가 서로 맞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역으로 가서 열쇠가 바뀐 것을 이야기하자, 그는 자전거를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가 아니라 대답하자 그는 다시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래서 그냥 길에 세워두었다고 하자 그냥 그대로 두라고 했다. 한국에서 자전거를 묶은 채로 3개나 분실당했던 나로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이외에는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철저한 신용 사회인만큼 이를 위반했을 시는 큰 벌을 받는다. 무임승차시 발각되면 엄청난 페널티를 물어야 하고 신용 카드의 경우 기한을 어기면, 당장 사용이 중지되고 은행에서든 거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22일간의 여행으로 그곳의 문화나 사회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여행하는 기간 동안 세계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많이 비교할 하게 되었다. 라틴계나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여행자의 물건을 많이 훔쳐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수준은 배울 점이 많았다. 나의 여행의 목적이 많은 견문을 쌓는 것이었던 만큼 부끄러워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문화에서 벗어나 세계 다른 여러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그들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체성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육 성 수
(서양 · 불어2)



“나 난 우리 아들이 캔디 데모하는 줄 알고 미안사리 협박 왔어. 근데 아니잖아. 전강우야 매를 다 잡아들일라고 하잖아. 아 왜 나간다는 애그를 못하게 하고 저리 쫓고생들 시켜. 이이고” 아들이 이따대 건물에 갈아 있더라 물었다는 어머니.

“친구가 백화병인데 좋은 일 하겠다고 했다가 잡혀갔어요” 건물밖으로 사연담은 종이백화병을 접던 여학생. 산을 넘어 이따대 건물로 와서는 아들이 이름을 부르며 “나 안오면 나 여기서 백화병”라는 아버지.

학살과 폭로수를 사가지고 왔다가 최파이프 전경들이 무서워 어쩔줄 몰라하다가 기지들에게 보따리를 걸기하는 어머니.

달리 사수대를 배장으로 도서관을 깨는 전경.

날이 온 종이백화병을 주워드는 일간지 기자 그리고 졸업생.

계속되는 철야에 취한 동대문경찰서 수사2계 김형사.

유치장마다 가득찬 젊은이들. 티키프 소.

80년대... 이런 잊혀진 줄로 알았던 이름들은 아직도 너무 가까이에 있다.

고영진 기자

두 번째 열린 학교를 생각하며...

단한 교육 현실에 대한 ‘몸부림’

“성남님, 졸업식이야요. 연극이 꼭 히어라가 뜨기 되도록 열심히 재 소신해 주세요. 여러가지로 애써주셔서 고맙구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 미안해요. 그림 안해요...”

한 아이의 내게 편지 끝에서...

몸부림이라는 애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즐거웠던 일, 힘겨웠던 일들을 감성적인 어구로 장식하는 그런 글 말이다. 물론 그러한 글의 형식 또한 가치있는 것이지만 우린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음과, 그러므로 나는 이글을 나만의 가치관을 담은 열린학교 비슷하게 써 볼 작정이다. 다만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으로 그리고 소중했던 기억들은 도입부에서 인용한 한 아이의 편지로 대신함을 밝히두고 싶다.

“몸부림”은 우리 연극반 이름이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은 것이다.

그리고 우라반은 그 나래를 타고 아이들의 아열한 호응이 있었고 졸업식날의 공연도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해냈다. 난 만족했고 아이들과 공유했던 웃음만을 추억할 뿐이었다.



다. 그러나 열린 학교를 마련된 보물창고는 지금 만족감보다 아쉬움이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다. 열린 학교의 참된 개교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기존하는 제도 교육의 허위를 비롯해서 해방기만인 아이들이 참교육의 꿈을 미련해두

자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난 그저 재미있게 하루 수업시간인 2시간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다. 다음은 내가 연극반 교사로 알려지게 된 건 끝이다.

“이번 연극의 준비과정이 단순히 추억 만들기

로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정경으로 나를 느끼고 그러므로 사람이 왜 사는지 조금은 알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부끄러움이 앞선다. 더욱이 과정에서의 의미는 접어둔 채 마지막날의 공연을 위해 정신없이 내달렸다는 게 너무나 아쉽다. 우린 어쩌면 대입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아니었는가. 그 기간이 즐거웠던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다르겠지만 이는 다른 반도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 모두는 몸부림의 의미를 좀 더 깊고 넓게 포용해야만 한다. 결코 그것이 적극적인 참여에 국한되는 단이만이 아님을 잊어야겠다. 이 척박한 대한민국 교육현실에 우린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러나 열린 학교를 빛냈던 것은 아이들의 열의였다. 아이들은 똑같은 국어, 영어 과목이라도 흥미롭고 참신한 수업을 만나지 못했기 자신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여러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아이들은 그들을 위해 고민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분출해 낸다.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죽어가는 작금의 교육이 새길 뿐이다. 내내에도 열린 학교는 존재한다. 그대의 우리는 진실로 따뜻한 교사의 모습으로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만나야 할 것이다.

박 순
(사법 · 학교1)

재우주세요

본보 문학부에서는 12월을 채워줄 참신한 장르의 글과 작품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시, 영화평, 서평, 여행기 등의 장르 뿐만 아니라 단편 소설, 공트, 수필, 만화, 서예작품, 판화작품, 창작광고 등 특정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글과 작품들을 원합니다. 12월 문예면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이적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 습 기 자 모 집

외 대학보의 시간속으로 뛰어드세요

모집부문: 대학 · 사진 · 문화 · 사회 · 광고 · 만화부
모집대상: 96학번의 외대인 누구나
문 의: 이문 ·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961-4466 · 4183 · 4152
왕산 ·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30-4112

부서회의 날, 화요일	전체회의 날, 수요일	취재의 날, 목요일	악몽의 날, 금요일	포판하는 날, 토요일	애방의 일요일	배프의 날, 월요일
외대학보의 일요일은 화요일에 시작한다. 친구들과 애기하면서 그 걱정 안하잖아. 친구는 학우들의 애기스 리에도 좋기는 데 그 생활에 몰려간 아이들에게 부장님은 냉담.	전 기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한 주 생활을 애기하며 반성하며 두 려두면, 이번 신문 아이템 정검하고 다음 신문 아이템을 토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벽을 향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학보 기자 000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 외대학우와 만나고 취재하고 집의나가 취재하고, 몸은 힘들지만 새로 만난 친구 · 선배들과 서로 일했던 여러 사실들... 가슴은 부들!	앗, 어느새 원고 마감. 취재도 아직 달렸는데, 전직을 부지런할까? 그 생활에 들고 간 원고, 선배의 표정은...? 실았다. O · K받은 원고를 보면 시 인젠 점을 저볼까? 그때 나를 부르는 소리 “이! 포판소 기자!”	일요일의 성가다 드디어 마무리 되는 토요일. 열심히 쓴 기사들과 조판으로 향한다. 제법 보고, 오자보고, 선배들에게 구박받아가며 하나둘 완성되는 저편들. 그리고 어스름과 함께 피로했던 한주일의 뒷물이. 그때 바로 이따 애는 거지.	애드미어오늘은 일요일인데 단 하루 학보사에서 애방하는 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일주 일전부터 이런저런 계획은 많았는데, 이젠 원일. 새벽녘에야 끝난 조판으로 일요일은 하루 종일 꿀잠 - 피로 회복이나 애아지.	12월 외대학보에 바쳐나온 내이를 부도 많. 이걸 위해 6일을 보냈어! 외대학우들! 제발 기사 잘 읽어주세요.